

광주일보 10기 리더스아카데미-고생물학자 박진영 '신비한 공룡의 세계'

“닭·비둘기가 ‘공룡’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공기주머니 있는 새 모두 ‘공룡’ 살아있는 종 수만 1만 종 넘어 ‘공룡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화 ‘아기공룡 둘리’ 속 둘리는 우리에게 꽤 친숙한 공룡입니다. 둘리를 보며 공룡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화 속 엄마가 친엄마가 맞냐는 거죠. 생김새를 봐도 둘은 확실히

다른 종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아기 둘리는 두 발로 걷는데 엄마 공룡은 네 발로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룡이 성장하면서 걸음걸이라든지 머리 형태가 달라진다는게 밝혀지면서 엄마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책과 그림책을 쓰는 고생물학자 박진영 서울대 고생물학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섰다. 전남대 고생물학 석사, 서울대 고생물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박 연구원은 현재 서울대 고생물학 연구실에서 아시아 갑옷공룡 화석을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펠랜 ‘판타스틱 공룡 일상’ 시리즈와 ‘신비한 익룡 사전’, ‘신비한 공룡 사전’, ‘박진영의 공룡 열전’ 등은 공룡을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주다가 리더스아카데미 회원들 앞에 서니 새롭다”고 말문을 연 박 연구원은 “공룡을 연구한다고 하면 영화 ‘인디애나 존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영화 속 존스 박사는 고고학자이며, 공룡을 연구하는 분야는 고생물학자라며 생소한 학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공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건 200년 가까이 됐다. 그동안 많은 데이터가 쌓였고 공룡을



박진영 고생물학자가 지난 4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신비한 공룡의 세계’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연구하는 기술도 발전해 지금은 공룡 뼈 하나만으로도 어느 무리의 공룡인지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지금의 고생물학자들은 과거 선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첨단 방법들로 공룡들을 연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물체를 10만 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공룡의 피부 화석만으로 공룡의 색을 복원할 수 있게 됐으며, CT 촬영을 통해 공룡의 뇌를 복원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지난 15년간 공룡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최근 들어 공룡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룡은 멸종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척추동물 가운데 공룡에게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룡의 골반 뼈를 보면 고관절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공룡의 화석을 다른 고생물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죠. 여러분이 박물관에 갔을 때 어떤 골격 표본을 보더라도 이게 공룡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익룡은 이 공기주머니 없기 때문에 비공룡 파충류로 구분됩니다.”

박 연구원은 몇 가지 척추동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고관절 부위에 확연한 구멍이 보이는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 프테라노돈은 공룡이 아닌 익룡임을 강조했다. 이후 보여준 사진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닭, 청둥오리, 꿩, 비둘기, 참새까지 몸속에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공룡’이라는 사실이다.

“참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이 모두 살아남은 공룡이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공룡에 대한 색다른 발견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직 인정하기 싫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저렇게 크고 멋있는데 참새는 멋이 없으면서 말이죠.”

이로 인해 공룡과 관련한 많은 기네스 기록이 새롭게 바뀌기도 했다. 가장 빠른 공룡은 송골매, 가장 높이 나는 공룡은 흑두루미, 가장 작은 공룡은 꿀벌새, 가장 길게 잠수하는 공룡은 황제펭귄, 가장 영리한 공룡은 까마귀로 기록됐다.

박 연구원은 또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전한다.

“작은 육식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은 마치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표현과 같아요. 사람은 포유류의 한 무리잖아요. 화석으로 발견된 공룡의 종 수가 1000종이라면,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의 종 수는 1만 종이 넘습니다. 공룡은 대부분 새이며, 공룡은 지금도 살아있죠. 오늘날을 포유류의 시대라고 하는데 포유류의 종 수는 6000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시대일까요?”

박 연구원은 현재 공룡들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년에 우리나라의 면적만큼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새들이 갈 곳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 학자들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는데 사람 때문에 멸종하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구를 좀 더 아끼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간혹 길을 가다가 비둘기를 발견하면 ‘무서워’ ‘더러워’ 하며 위협을 가하지 말고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공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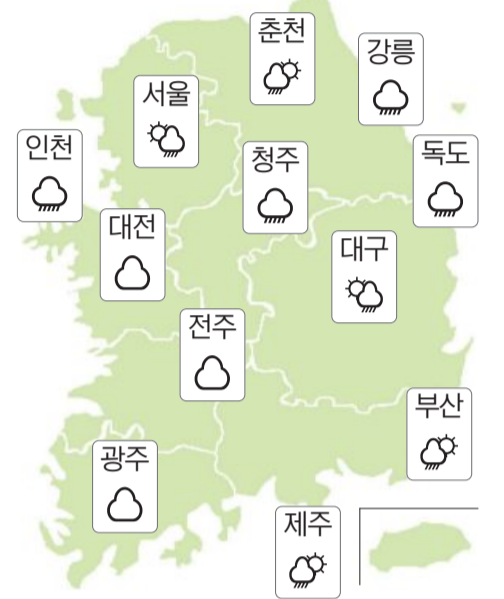
해돋이	06:31	달뜨기	16:28
해질	18:10	달지기	01:04

우산 챙기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내리는 곳 있겠다. 예상 강수량 5~20mm.

광주	흐림	14/21	보성	비온뒤맑	12/22
목포	흐림	15/20	순천	비온뒤맑	15/22
여수	비온뒤맑	16/21	영광	흐림	14/20
나주	흐림	13/21	진도	흐림	13/20
완도	흐림	15/22	전주	흐림	14/20
구례	비온뒤맑	13/21	군산	구름많음	13/20
강진	흐림	14/23	남원	흐림	13/21
해남	흐림	14/21	흑산도	흐림	15/18
장성	흐림	13/2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1.0~2.0	0.5~1.5
	면바다(북)	1.5~3.0	1.5~2.5
	면바다(남)	1.5~3.0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1.0~2.0	0.5~1.0
	면바다(서)	1.5~2.5	1.0~2.0
	면바다(동)	1.5~2.5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46	11:07
		14:40	--:--
여수		00:40	06:27
		12:23	19:10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낮음	좋음

◇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4/20	11/22	14/21
10(월)	11(화)	12(수)
14/19	12/19	10/22

말바우시장상인회,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 기증



말바우시장상인회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서 200매를 기증했다. 헌혈증은 말바우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모은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위기가정 긴급지원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동구 위기가정에 희망봉차 긴급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김재오·전선옥씨 아들 형석군, 이석춘(광산경찰서 도산파출소 팀장)·박채심씨 딸 수민양 =8일 오전 11시 50분 광주 JS웨딩홀 3층 그레이스홀
- ▲임길락(전 조선대병원 총무부장)·소경란씨 아들 동신군, 유지연씨 딸 서수민양 =15일 오전 11시 광주 워더스웨딩홀 5층 엘린홀
- ▲서팔만·김미옥씨 아들 재명군, 나금석(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전국연합회장)·김명희씨 딸 혜윤양 =15일 오후 12시 40분 광주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
- ▲정광익(목포재활요양병원장)·오소저씨 아들 희철군, 성기훈·이순애씨 딸 예지양=15일 광주 하우스 오브 드레즈 3층 아벨린홀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

- 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자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아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는

-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방야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